

주간 2017. 05. 22. ~ 2017. 05. 28.

전남농업정보

137
VOL

기상전망

농산물 주간 동향 (관측정보)

- 쌀 재배면적, 가격전망
- 가축사육 및 수급동향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전남 벤처청년농 가공상품 美 한인마트 공략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 단영마늘 큰주아 순환재배를 아십니까?
- 벼 무논점파 재배 잡초관리 제초제 처리시기 중요

정책동향

- 전남도, 가뭄 피해 예비비 15억 긴급 투입
- 자연순환농업... 가축분뇨 액비 살포 서둘러야

사업신청 및 홍보

- 유기농 종합보험 농가 부담액 100% 지원
- 축산관계자 해외여행 시 출 · 입국 신고 강화



목차 및 요약

1. 주간 기상전망 5

- ▶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4~18도, 최고기온: 23~28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2~6mm)보다 적겠음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쌀 재배면적, 가격전망
- ▶ 가축사육 및 수급동향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0

- ▶ 전남 벤처청년농 가공상품 美 한인마트 공략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1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13

- ▶ 가뭄 극복 현장 기술지원 추진
- ▶ 단영마늘 큰주아 순환재배를 아십니까?
- ▶ 알곡 작은 조, 줄뿌림 파종 기술로 손쉽게 재배하세요
- ▶ 감자 수확 후 오래오래 신선하게 저장하세요
- ▶ 토마토·파프리카·딸기 등 유통기간 늘리는 농산물 포장기술



- ▶ 벼 무논점과 재배 잡초관리 제초제 처리시기 중요
- ▶ 보리·밀 제때 수확하고 관리해야 품질 향상 쑥쑥!
- ▶ 스마트 기기로 농경지 토양진단과 맞춤형 처방 한다
- ▶ 사료작물 값아먹는 멸강충 지금 방제하세요
- ▶ 붉은 무의 비밀 밝혀... 안토시아닌 생성 핵심유전자 발견

6. 정책 동향 27

- ▶ 전남도, 가뭄 피해 예비비 15억 긴급 투입
- ▶ 자연순환농업... 가축분뇨 액비 살포 서둘러야
- ▶ 전남도, 6~8월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 운영
- ▶ 보육매니저 도입으로 6차산업 창업 쉬워진다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2

- ▶ 여수시, 가뭄 대비 차질 없는 영농급수 총력
- ▶ 나주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시스템 통합개편 오픈
- ▶ 광양시, 명품 『빛그린 광양매실』 본격 출하
- ▶ 곡성군, 벼 깨씨무늬병 예방 시범농가 교육
- ▶ 고흥군, 벼 농작물재해보험료 80% 지원
- ▶ 보성군, 가뭄·폭염 대비 발빠른 대책 마련
- ▶ 함평군, 생대추 육성 현장교육 실시
- ▶ 영광군, 영광모시잇송편 지역 명품 떡으로 우뚝
- ▶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초·중·고생 농촌체험장으로 탈바꿈

8. 해외 농업정보 41

- ▶ 일본, 2017년 트렌드 『기능성』에 주목, 고당도계 야채가 인기
- ▶ 베트남 농업 발전과 한국 농기계 수출 기반 마련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5. 29.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 가격은 옥수수·대두의 하락세에 동조하며 전일대비 하락 마감하였음. 그러나 환매수세 유입 및 겨울 밀 생산 지역의 습한 기후에 대한 우려 등은 가격 하락을 제한하였음
- 옥수수 : 옥수수 선물 가격은 풍부한 글로벌 공급량으로 인해 전일대비 하락하였음. 그러나 중서부 지역의 비로 인한 피해는 가격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대두 : 대두 선물 가격은 풍부한 글로벌 공급량 및 재고량으로 인해 전일대비 하락하였음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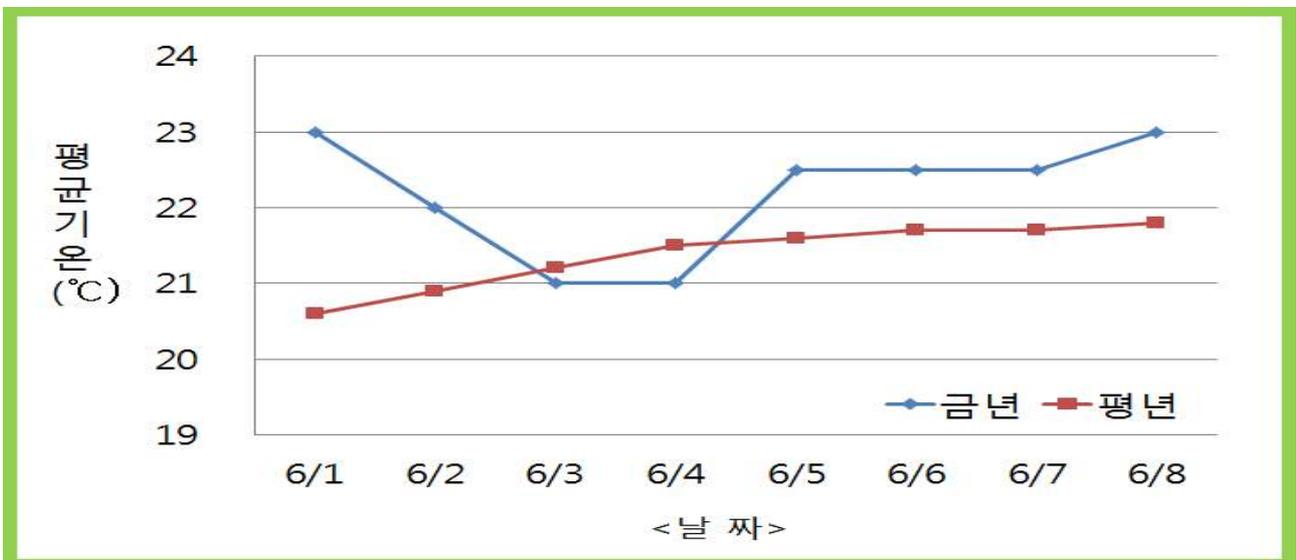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5

- ▶ 유기농 종합보험 농가 부담액 100% 지원
- ▶ 축산관계자 해외여행 시 출·입국 신고 강화
- ▶ 5월 22일부터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 실시
- ▶ 곡식의 씨앗을 뿌리는 망종(芒種)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6월 01일 ~ 6월 08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22.2℃ (평년대비 0.8℃ 높음)
- 최고기온 : 27.4℃ (평년대비 0.1℃ 높음)
- 최저기온 : 17.0℃ (평년대비 0.6℃ 높음)
- 강수량 : 3.5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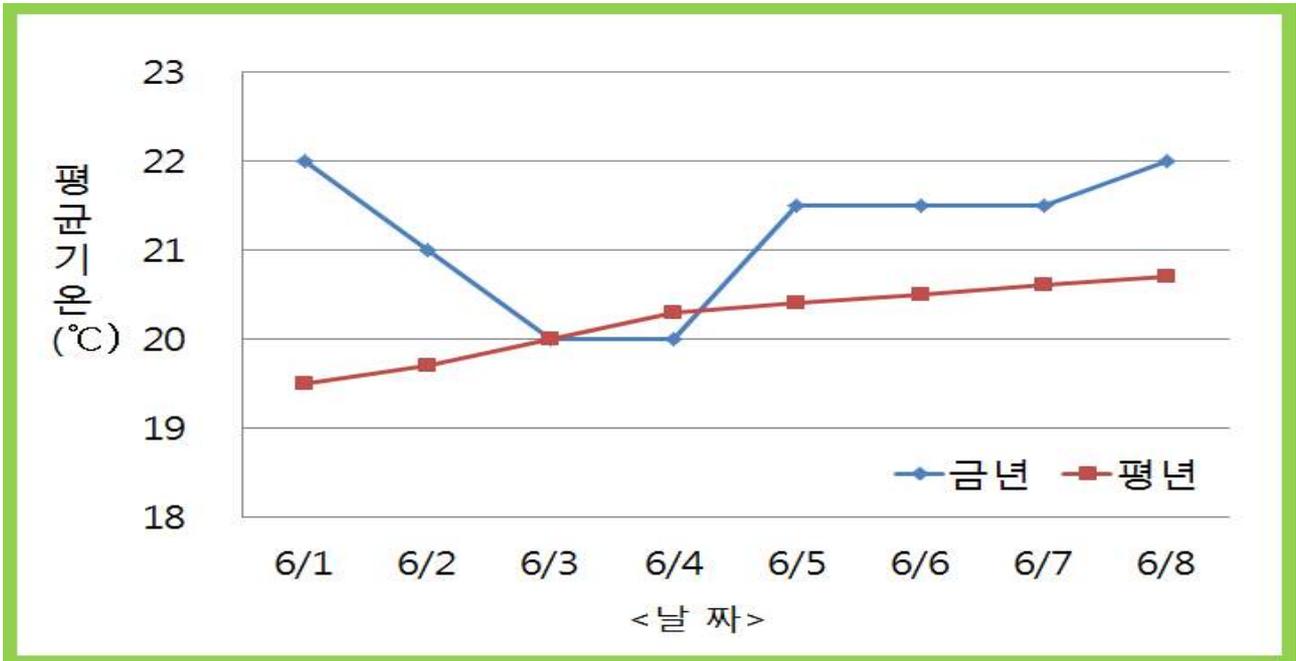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2.2	21.4	0.8	27.4	27.3	0.1	17.0	16.4	0.6	3.5
6. 01.(목)	23.0	20.6	2.4	28.0	26.6	1.4	18.0	15.5	2.5	4.4
6. 02.(금)	22.0	20.9	1.1	27.0	27.0	0.0	17.0	15.7	1.3	4.0
6. 03.(토)	21.0	21.2	-0.2	27.0	27.1	-0.1	15.0	16.1	-1.1	3.9
6. 04.(일)	21.0	21.5	-0.5	26.0	27.5	-1.5	16.0	16.4	-0.4	3.0
6. 05.(월)	22.5	21.6	0.9	29.0	27.6	1.4	16.0	16.5	-0.5	2.3
6. 06.(화)	22.5	21.7	0.8	27.0	27.6	-0.6	18.0	16.7	1.3	2.7
6. 07.(수)	22.5	21.7	0.8	27.0	27.5	-0.5	18.0	16.9	1.1	3.3
6. 08.(목)	23.0	21.8	1.2	28.0	27.4	0.6	18.0	17.1	0.9	4.1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6월 01일~6월 08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21.2℃ (평년대비 1.3℃ 높음)
- 최고기온 : 24.9℃ (평년대비 0.4℃ 낮음)
- 최저기온 : 17.5℃ (평년대비 1.1℃ 높음)
- 강수량 : 3.3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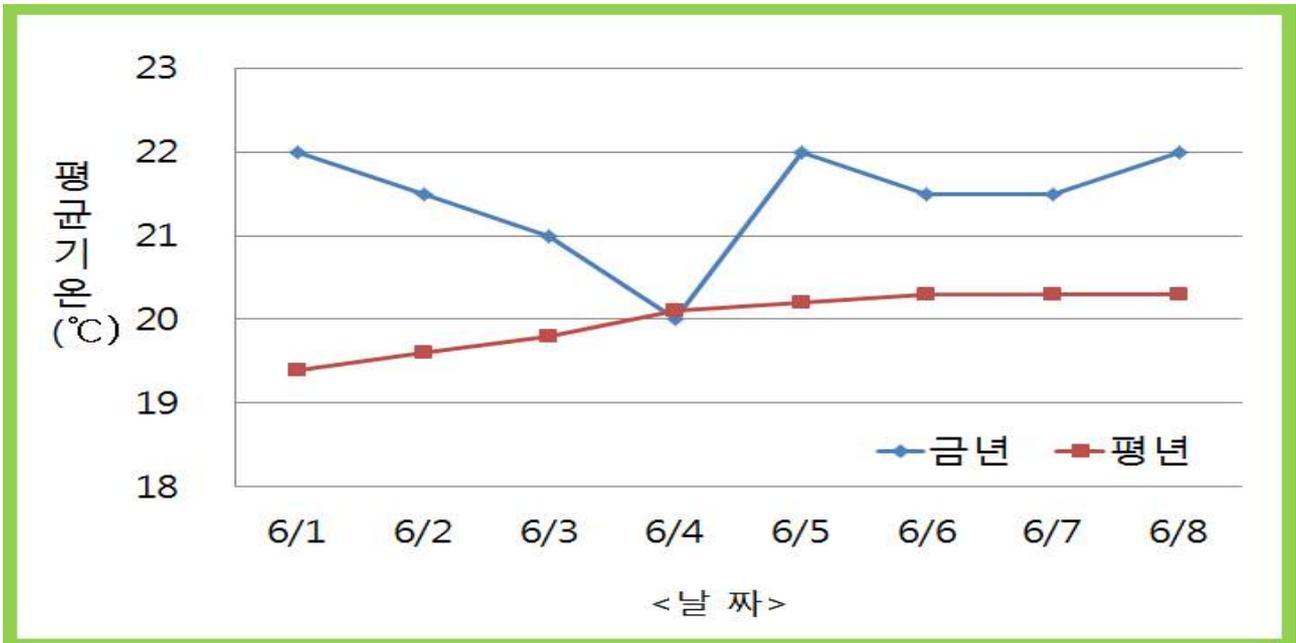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 (°C)			최고기온 (°C)			최저기온 (°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1.2	20.2	1.3	24.9	25.3	-0.4	17.5	16.4	1.1	3.3
6. 01.(목)	22.0	19.5	5.0	26.0	24.6	1.4	18.0	15.7	2.3	3.8
6. 02.(금)	21.0	19.7	1.3	24.0	24.9	-0.9	18.0	15.8	2.2	3.7
6. 03.(토)	20.0	20.0	0.0	24.0	25.2	-1.2	16.0	16.2	-0.2	3.5
6. 04.(일)	20.0	20.3	-0.3	23.0	25.5	-2.5	17.0	16.4	0.6	2.5
6. 05.(월)	21.5	20.4	1.1	26.0	25.6	0.4	17.0	16.5	0.5	2.6
6. 06.(화)	21.5	20.5	1.0	25.0	25.5	-0.5	18.0	16.7	1.3	3.0
6. 07.(수)	21.5	20.6	0.9	25.0	25.5	-0.5	18.0	16.9	1.1	3.3
6. 08.(목)	22.0	20.7	1.3	26.0	25.4	0.6	18.0	17.1	0.9	4.1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6월 01일~6월 08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21.4℃ (평년대비 1.4℃ 높음)
- 최고기온 : 24.5℃ (평년대비 0.8℃ 높음)
- 최저기온 : 18.4℃ (평년대비 1.3℃ 높음)
- 강수량 : 3.9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1.4	20.0	1.4	24.5	23.8	0.8	18.4	17.0	1.3	3.9
6. 01.(목)	22.0	19.4	2.6	25.0	23.1	1.9	19.0	16.3	2.7	5.4
6. 02.(금)	21.5	19.6	1.9	24.0	23.4	0.6	19.0	16.5	2.5	4.7
6. 03.(토)	21.0	19.8	1.2	25.0	23.6	1.4	17.0	16.8	0.2	4.4
6. 04.(일)	20.0	20.1	-0.1	23.0	23.9	-0.9	17.0	17.1	-0.1	3.4
6. 05.(월)	22.0	20.2	1.8	26.0	24.2	1.8	18.0	17.2	0.8	2.6
6. 06.(화)	21.5	20.3	1.2	24.0	24.0	0.0	19.0	17.3	1.7	2.9
6. 07.(수)	21.5	20.3	1.2	24.0	23.9	0.1	19.0	17.5	1.5	3.6
6. 08.(목)	22.0	20.3	1.7	25.0	23.9	1.1	19.0	17.6	1.4	4.3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쌀 재배면적, 가격전망

□ 소비자 쌀 판매량 감소폭 확대

- 2016년산(2016. 10.~2017. 4.) 소비자 쌀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4.5% 감소하여 2015년산 전년 동기대비 감소율(-3.8%)보다 확대

□ 산지유통업체 재고량 전년과 비슷한 수준

- 2017년 4월말 산지유통업체 재고량은 전년 동기대비 1천톤 증가한 81만 7천톤

□ 2017년 벼 재배의향면적 75만 5천ha

- 정부의 쌀 적정생산유도 정책의 영향으로 2017년산 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벼 재배면적보다 3% 감소(2만 3천ha)한 75만 5천ha

□ 향후 산지 쌀 가격 약보합세 예상

- 2017양곡연도 단경기(7~9월) 산지 쌀 가격은 전년과 수확기 대비 각각 10.4%, 3.5% 하락한 20kg당 3만 1,300원 내외로 예상

가축사육 및 수급동향

□ 한육우 : 6~8월 한우 1등급 도매가격 전년보다 약세 전망

- 도축 마릿수 증가로 공급물량이 증가하고 수요 불확실성이 커, 6~8월 큰 소 1등급 평균 도매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하락한 kg당 16,500~17,500원(생체 600kg 환산 591~627만원)으로 전망

□ 돼지 : 6월 돼지 지육가격 탕박 kg당 5,400~5,700원 전망

- 모돈 수 증가로 자돈 생산이 증가해 3월 돼지 총 사육 마릿수 전년 동월대비 0.1% 증가한 1,033만 마리
- 2016년 여름 폭염피해로 생산성이 저하되어 6월 등급판정 마릿수 전년 동월(129만 마리)보다 감소한 122만 마리 전망
- 국내 돼지 지육가격이 상승하여 6월 돼지고기 수입량 전년 동월보다 증가한 3만톤 내외 전망
- 6월은 등급판정 마릿수 감소로 전년 동월보다 강보합세 전망
- 6월 돼지 지육가격은 탕박 기준 kg당 평균 5,400~5,700원으로 전망

□ 육계 : 6월 육계 산지가격 전년보다 상승한 kg당 1,900~2,100원 전망

- 4월 종계 성계 사육 마릿수 전년 동월보다 4.5% 감소한 494만 마리, 총 사육 마릿수는 0.8% 증가한 840만 마리 추정
- 종계 성계 사육 감소와 종계 생산성 하락으로 5월 병아리 생산량은 전년보다 5.4% 감소 추정
- 6월 도계 마릿수는 육용계 사육 마릿수 감소로 전년대비 6.1% 감소 전망
- 6월 닭고기 공급 감소와 계열업체의 구매 증가로 육계 산지가격 전년보다 상승한 kg당 1,900~2,100원 전망
- 8월까지 병아리 생산 잠재력은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 9월 이후 높을 전망
- 도계 마릿수 감소로 7~8월 육계 산지가격 kg당 1,800~2,100원 전망
- 3분기 이후 닭고기 공급 과잉 우려 제기, 수급 안정 노력 필요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전남 벤처청년농 가공식품 美 한인마트 공략

- 전남농업기술원, 전문가 초청 美 한인마트 입점 상담회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5월 25일 농촌진흥청과 공동으로 전남 벤처청년농의 글로벌 수출 역량강화와 농식품 가공식품의 미국 한인마트 진출을 위해 (주)그린와이즈 손대홍 대표를 초청해 미니 입점 상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美 한인마트 입점 상담회를 진행한 손대홍 대표는 미국 H-마트 부사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주식회사 그린와이즈를 설립하여 한국산제품을 H-마트 등에 직접 납품을 하고 있다.
- 입점 상담회에는 아름다운그린배영농조합법인, 황금씨앗, 명인신광수차, 도담농장, 싱싱농원 등 전남의 우수 가공식품 생산 법인체 20여 개 업체가 참여했다.
- 농업기술원에서는 벤처청년농 육성을 위해 5년 전부터 창업자금 2천만원을 지원하여 가공제품 생산 기반조성과 가공기술 컨설팅을 지원하여 현재 벤처청년농들이 자체 모임체를 결성하여 공동마케팅 등 협동조합으로 발전하였다.
- 특히, 입점 상담회에서는 수입바이어 입장에서 벤처농들의 가공식품 차별화, 기능성, 소포장, 디자인, 가격, 홍보마케팅 등을 집중상담 및 컨설팅이 실시되었다. 앞으로 일부 차별화되고 기능성이 있는 가공식품은 H-마트 등에 납품 상담이 이루어졌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05. 29.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5/29)	1주일전 (05/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 작물	쌀(일반계)	20kg	31,800	31,800	31,800	36,200	41,467	↓ 12.2	↓ 23.3
	콩(백태)	35kg	170,600	172,000	172,000	150,000	162,467	↑ 13.7	↑ 5.0
	고구마(밤)	10kg	26,400	26,600	26,400	30,650	29,003	↓ 13.9	↓ 9.0
	감자(수미)	20kg	46,000	53,000	39,500	38,050	36,350	↑ 20.9	↑ 26.5
채 소 류	배추(봄)	1kg	350	430	-	965	660	↓ 63.7	↓ 47.0
	양배추	10kg	4,200	4,400	4,450	11,700	9,847	↓ 64.1	↓ 57.3
	오이(다다기계통)	10kg	10,667	12,667	13,000	11,667	13,311	↓ 8.6	↓ 19.9
	애호박	8kg	10,600	12,600	10,550	10,600	10,960	-	↓ 3.3
	건고추(화건)	60kg	546,000	546,000	560,000	710,000	778,667	↓ 23.1	↓ 29.9
	풋고추	10kg	47,400	44,400	56,400	39,100	39,580	↑ 21.2	↑ 19.8
	마늘(깐마늘)	20kg	132,800	135,000	137,600	175,000	114,107	↓ 24.1	↑ 16.4
	양파	20kg	20,000	20,200	17,350	14,800	15,013	↑ 35.1	↑ 33.2
	당근	20kg	33,600	34,000	41,300	32,000	31,873	↑ 5.0	↑ 5.4
	대파	1kg	1,580	1,630	1,620	2,198	1,948	↓ 28.1	↓ 18.9
	파프리카	5kg	19,400	20,800	18,050	17,600	22,013	↑ 10.2	↓ 11.9
	참외	10kg	38,600	44,600	50,500	31,950	34,950	↑ 20.8	↑ 10.4
	토마토	10kg	22,000	23,200	19,450	16,300	20,367	↑ 35.0	↑ 8.0
	방울토마토	5kg	19,200	19,600	19,350	14,900	15,700	↑ 28.9	↑ 22.3
	수박	1개	16,600	17,400	16,700	15,200	15,520	↑ 9.2	↑ 7.0
과 목 류	사과(후지)	10kg	40,200	39,600	37,600	37,000	50,253	↑ 8.6	↓ 20.0
	배(신고)	15kg	46,800	44,200	43,000	44,400	49,000	↑ 5.4	↓ 4.5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05/29)	1주일전 (05/2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19,000	519,000	519,000	527,000	551,667	↓ 1.5	↓ 5.9
	느타리버섯	2kg	11,200	11,600	12,450	13,100	12,500	↓ 14.5	↓ 10.4
	새송이버섯	2kg	7,800	7,600	7,400	7,800	7,960	-	↓ 2.0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786	7,846	7,791	7,481	6,356	↑ 4.1	↑ 22.5
	돼지고기(삼겹살)	100g	2,214	2,228	2,065	2,055	1,984	↑ 7.7	↑ 11.6
	닭고기	1kg	5,967	5,827	5,547	5,600	5,623	↑ 6.6	↑ 6.1
	계란(특란)	30개	7,991	8,040	7,809	5,395	5,570	↑ 48.1	↑ 43.5
	우유	1리터	2,530	2,530	2,529	2,549	2,478	↓ 0.7	↑ 2.1

※ 가격변동폭이 30% 이내 ↑↓, 31~70% ↑↓, 70% 이상 ↑↓ 으로 표시함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05. 29.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325 천원	5,293 천원	5,915 천원	↑ 0.6	↓ 10.0
	거세	6,264 "	6,477 "	7,186 "	↓ 3.3	↓ 12.8
송아지 (6~7월)	암	2,959 "	3,047 "	3,167 "	↓ 2.9	↓ 6.6
	수	3,818 "	3,754 "	3,866 "	↑ 1.7	↓ 1.2
육우(600Kg)		2,612 "	2,351 "	3,371 "	↑ 11.1	↓ 22.5
젓소수송아지(7일령)		189 "	206 "	337 "	↓ 8.3	↓ 43.9
돼지(110kg)		435 "	439 "	404 "	↓ 0.9	↑ 7.7
육계(원/kg)		2,546 원	2,536 원	1,257 원	↑ 0.4	↑ 102.5
계란(원/특란10개)		2,117 "	2,119 "	940 "	↓ 0.1	↑ 125.2
오리(원/kg)		2,667 "	2,667 "	1,667 "	- 0.0	↑ 60.0

※ 한우(거세우) : 7,144천원/마리(△880)

· '15년 생산비(5,658)-'15년 송아지 가격(2,332)+현재 수 송아지 가격(3,818)

- 육우 3,798천원, 돼지 297천원, 육계 1,278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1,051원/10개, 우유 763원/l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가뭄 극복 현장 기술지원 추진

- 토양수분조사, 단계별·작목별 가뭄 대책기술 현장 기술지원 강화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은 가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5월 24일 가뭄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시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대책 회의, 토양수분조사, 단계별·작목별 가뭄 대책기술 현장 기술지원을 강화한다.
- 광주지방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1개월(4. 24.~5. 24.)까지 강수량은 36mm로 전년 166mm 보다 130mm, 평년 100mm 보다 64mm가 적었고, 저수율은 25일 현재 62.1%로 평년 78%보다 15.9%가 적었으며, 향후 1개월 기상전망에도 평년보다 높은 기온, 적은 강수량을 예보하고 있다.
- 이러한 기상여건을 극복하기 위해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서는 현장 기술지원 강화를 위한 가뭄대책상황실 운영체계를 가동, 5월 18일부터 매주 밭토양 수분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24일에는 시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대상으로 가뭄 대책회의로 추진, 대책수립 촉구에 나섰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단영마늘 큰주아 순환재배를 아십니까?

- 신품종 단영마늘 0.5~1g 큰주아를 이용한 연속적인 씨마늘 생산 방법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신품종 단영마늘의 큰주아를 이용한 우량 씨마늘 생산 순환재배에 성공하였다고 하였다. 단영마늘 큰주아 순환재배법은 기존에 개발된 1회성 재배법이 아닌 연속적인 재배가 가능한 큰주아 재배법으로 생산비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된다.
- 기존 남도마늘의 큰주아 재배법은 20년 전부터 연구가 되었는데 0.5g 이상의 큰주아를 9월에 심어 다음해 6월에 우량 인편을 생산하고 여기서 생산된 인편을 씨마늘로 이용하면 2년 동안 수량이 20% 정도 증수되고 씨마늘 값을 70% 절감할 수 있어서 이 재배법을 농가에 보급하였으나, 큰주아를 동시에 생산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서 큰주아를 생산하는 별도의 채종포가 필요하였다.
- 그러나 단영마늘 큰주아 순환재배법은 우량 인편 생산뿐만 아니라 큰주아를 대량으로 동시에 생산 할 수 있어서 큰주아 채취를 위한 채종포가 필요가 없이 농가에서 해마다 계속해서 큰주아 재배를 쉽게 실천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영마늘이 남도마늘보다 큰주아 생산성이 높기 때문이다.
- 단영마늘 0.5~1g의 큰주아를 재배하면 이듬해 5.6~6.3g의 인편 생산과 동시에 큰주아 10a당 24만~29만개를 생산할 수 있어서 남도마늘보다 6배 정도 큰주아 생산성이 높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알곡 작은 조, 줄뿌림 파종 기술로 손쉽게 재배하세요

- 콤바인 수확에 적합해 노동력 48.2% 절감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기계화율이 낮아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소립형 잡곡 조의 넓은 이랑 줄뿌림 파종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국내 조 농사는 대부분 원료곡 생산위주의 소규모 영농형태로 재배되고 있으며, 파종, 솟음, 제초작업, 수확 등에 인력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작업 의존도가 높다.
- 새로 개발한 조의 넓은 이랑 줄뿌림 파종 기술은 평야지 밖에서는 습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로 완만한 입지조건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이다.
- 먼저 파종 방법은 포장을 경운·정지 후 트랙터 부착 줄뿌림 파종기(직파기)를 이용해 150cm의 넓은 두둑을 만들고 동시에 30cm 이랑너비로 5줄로 줄뿌림 파종하면 된다.
- 이때 씨앗은 포기 사이 3cm 너비에 1~2알을 1~3cm 깊이로 줄뿌림하고 동시에 파종기에 부착된 진압롤러로 다짐 작업을 하면 발아율이 높아진다.
- 이 파종 기술은 기존의 높은 이랑 기계점파에 비해 좀 더 촘촘하게 심겨 이삭 크기가 작아져 수확 시, 쓰러짐이 적어 기계 수확에 유리하다.
- 기존의 기계점파는 트랙터 부착 파종기로 이랑너비 60cm, 포기 사이 10cm 간격으로 파종하는 기술로 조는 알곡 크기가 매우 작아서 기계점파 하면 입모가 불균일하고 솟음작업 등 추가 노동력이 많이 든다.

- 조의 넓은 이랑 줄뿌림 파종 기술은 4조식 자탈형(벼)콤바인의 예취너비로 한번 주행으로 한 두둑씩 기계수확이 가능하고, 또한 수확할 때 이삭의 엉킴에 의한 손실률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조의 콤바인 수확 시, 기존 자탈형(벼)콤바인에 장착된 탈곡망(13mm)은 촘촘한 메쉬(그물)형태의 탈곡망(6mm)으로 교체하고, 탈곡 드럼 회전속도는 『약』 위치, 선별체 채퍼각은 『보리수확』, 배진량은 『적계』에 고정 송풍바람의 세기는 『약』(약 2.40m/s)에 고정, 0.5m/s 작업속도로 수확하면 된다.
- 이번에 개발된 조의 넓은 이랑 줄뿌림 파종 기술은 기존의 높은 이랑 기계점파 기술에 비해 10a당 수량이 약 18% 높았다. 또한 줄뿌림재배와 콤바인 수확기술을 적용하면 기존의 기계점파 기술에 비해 약 48.2% 정도 노동력이 절감되고, 9% 소득 증가 효과가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줄뿌림 파종】



【입모】



【수확기 생육】



■ 감자 수확 후 오래오래 신선하게 저장하세요

- 봄 감자 수확 후 관리 및 용도별 저장 온도 제시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올해 봄 감자 수확시기를 맞이해 감자를 신선하고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한 올바른 수확 후 관리요령을 제시했다.
- 최근 수확 후 관리 소홀로 인해 감자의 품질이 나빠지고 특히, 저장 중 속이 검게 변하는 흑색심부병으로 인해 품질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 감자 수확은 비가 오지 않는 날 토양이 비교적 건조할 때 실시하며 병든 감자는 제거한 후 예비 저장하는 것이 좋다.
- 예비저장을 하면 감자의 호흡이 안정되고, 표피가 단단해 지면서 수확 시 상처 난 부분이 치유돼 품질 유지와 장기간 저장하기 좋다.
- 예비저장 방법은 상대습도 85%, 온도 20℃ 조건에서 10~15일 동안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온·습도 조절이 어려운 일반 농가에서는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15일 정도 편평하게 펴서 보관하는 것이 좋다.
- 예비저장 후에는 감자의 이용 목적에 따라 온도를 달리해 저장하며 장기간 저장 시에는 저장고 내 환기를 잘 해줘야 한다.
- 일반 식용감자는 4℃ 내외에서 저장하고, 한 달 안에 사용할 경우 10℃ 내외 또는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곳이 좋다.

- 가공용 감자는 저온에서 저장할 때 환원당 함량이 증가해 가공품 제조 시 색이 좋지 않으므로 일반 식용감자보다 높은 온도인 7~8℃ 정도로 저장한다.
- 출고 시점을 기준으로 20일 전부터 서서히 온도를 높여 2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출고 전까지 하루에 0.5~0.7℃ 정도 높여 20℃까지 올려준다.
- 또한, 저장 중 감자 속이 검게 변하는 흑색심부 현상을 예방하려면 수확한 감자를 바람이 잘 통하는 플라스틱 또는 나무 상자에 보관한다. 마대자루와 같이 통기성이 좋지 않은 용기는 뻑뻑하게 쌓지 않도록 주의하며, 저장고 내 환기에 신경 써야 한다.
- 농촌진흥청 구본철 고령지농업연구소장은 “수확한 감자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신선하게 오랫동안 저장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수확 후 관리요령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토마토·파프리카·딸기 등 유통기간 늘리는 농산물 포장기술

- 『팻릿 단위 기체조성(MA) 포장기술』 개발... 수출 농산물 적용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농산물의 곰팡이 발생을 억제해 저장 기간을 늘리는 수출 및 내수용 『팻릿 단위 기체조성(이하 MA; Modified Atmosphere) 포장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 기존의 MA 포장기술은 수분투과도가 낮은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필름을 이용했기 때문에 종이로 만든 골판지상자로 포장된 농산물에는 적용하기 어려웠다.
- 이번에 개발한 팻릿 MA 포장기술은 수분투과도가 높은 폴리아미드(PA) 필름을 사용해 결로(비닐 표면에 이슬 맺힘) 현상을 최소화했다.
- 새로운 팻릿 포장기술은 기존의 포장방법을 최대한 활용했고, 기체조성은 소량의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간단한 방법이다.
- 포장방법은 파렛트 위와 아래에 폴리아미드 필름을 사용하고 옆면은 팻릿 랩핑기로 스트레치 필름(공업용 랩)을 감싸는 기존 방법을 활용했다.
- 농산물이 호흡하면 산소 농도가 낮아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져서 곰팡이 발생을 억제하는데, 포장 초기부터 곰팡이 억제 효과를 얻기 위해 초기 이산화탄소를 0%가 아닌 5%부터 증가하도록 약 20L 주입하면 된다.
- 개발된 팻릿 MA 포장기술을 적용할 경우 대표적인 수출 농산물인 토마토·파프리카·딸기의 곰팡이는 각각 4주, 2주, 13일간 발생하지 않거나 소량 발생했다.

- 감모율도 저장 대비 70, 40, 34%로 향상돼 저장기간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때의 적정 기체 조성조건은 이산화탄소 15~20%, 산소 2~5%임을 밝혔다.
- 토마토는 4℃에서 일반저장은 10%의 곰팡이가 발생한데 비해 MA 포장에서는 4주간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감모율도 관행저장 대비 70% 이하로 낮았다.
- 파프리카는 4℃에서 일반저장은 2주 되는 시기부터 5%의 곰팡이가 발생한데 비해 MA 포장에서는 2주 동안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감모율은 관행저장 대비 40% 이하로 낮았다.
- 딸기는 4℃에서 일반저장은 저장 8일 부터 곰팡이가 발생해 13일 차에는 34%로 급증한 반면 MA포장에서는 13일차에도 1.5%로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며, 감모율도 관행저장 대비 30% 이하로 낮았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벼 무논점과 재배 잡초관리 제초제 처리시기 중요

- 잡초생장 빨라 제초제 처리시기 관행보다 3~6일 정도 앞당겨야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벼 무논점과 재배의 효과적인 잡초관리를 위해서는 벌써 파종시기에 따라 제초제 처리시기를 달리해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 쌀 생산비 절감방안으로 모기르기 노력을 절감할 수 있는 무논점과 재배면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무논점과재배는 기존의 건답 및 담수직파에 비해 파종작업이 쉽고 재배 안정성이 높아 전남 도내에 2014년 2,530ha에서 2016년 5,712ha로 확대되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 무논점과재배는 이앙재배나 담수직파재배와는 달리 정지작업 후 논 굳힘 기간이 5~7일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잡초방제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잡초는 정지작업 직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며 벌써 파종시기나 기상환경에 따라 성장속도가 달라지므로 무논점과재배에 적용할 수 있는 토양처리 중기제초제는 일년생잡초 『피』의 최고엽령이 3.0엽 이내에서만 방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초제 처리시기가 매우 중요하다.
- 따라서 무논점과재배에서 효율적으로 잡초를 방제하기 위해서는 파종 전 제초제를 반드시 처리해 주어야 하며, 중기제초제 처리시기를 파종시기에 따라 관행보다 3~6일정도 앞당겨야 한다. 즉, 5월 10일 전후에 파종할 경우에는 12일 이내에, 5월 20일 이후에는 9일 이내에 처리해야 피를 포함한 기타 잡초까지 효율적으로 방제할 수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보리·밀 제때 수확하고 관리해야 품질 향상 쑥쑥!

- 보리는 이삭 팬 후 최소 35일, 밀은 40일 이후 수확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밀과 보리 수확기를 앞두고 고품질 맥류 생산을 위해 수확 적기 준수와 수확 후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논에서 재배하는 보리·밀은 수확과 건조 작업이 모내기 일정과 겹쳐 수확을 앞당기는 경향이 있다. 특히 콤바인을 이용해 수확 적기보다 앞당겨 수확할 경우, 낱알이 으깨지고 수분이 많아 건조 시간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고온 건조에 의해 품질이 떨어진다.
- 알맞은 수확 적기로 보리는 35일 경이며, 밀은 이삭이 팬 후 최소 40~45일경이다. 하지만 최근 맥류도 건조저장센터(DSC)를 이용한 산물수매처리가 이루어져 종실 수분이 20% 이하가 될 수 있도록 일반 수확 시기보다 2~3일 늦게 수확하는 것이 좋다.
- 밀은 보리가 섞여 있으면 밀가루의 품질을 크게 떨어뜨리므로 보리를 반드시 분리해야 하며 종자용으로 활용할 경우 다른 품종이 섞이지 않도록 수확 전 형태, 색깔 등이 다른 종자들을 골라내야 한다.
- 갓 수확한 보리와 밀은 수분이 많아서 한곳에 오래 쌓아 두면 변질되기 쉽다. 수확한 보리와 밀은 건조온도를 낮춰 수분함량이 밀은 12%, 보리는 14% 이하가 되도록 말린다.
- 말린 보리·밀은 15℃ 이하(상대습도 75% 이하)의 저온에서 저장한다. 별도의 저온 저장시설이 없을 경우 건조가 완료된 보리와 밀은 비닐 등으로 밀봉 저장해 수분이 재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고 곰팡이나 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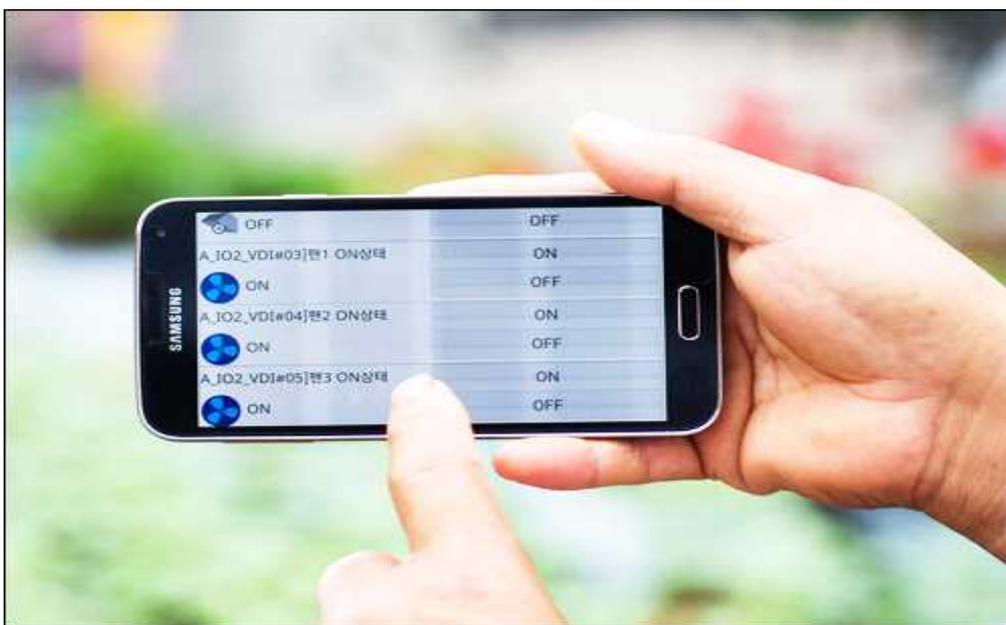
■ 스마트 기기로 농경지 토양진단과 맞춤형 처방 한다

- 농경지 현장진단 기술 활용 강화... 토양진단·처방 경진대회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토양 현장진단 결과를 등록하면 시비 처방 의견을 받는 기술을 개발하고, 휴토람 모바일 웹(<http://soil.rda.go.kr/>)에 『현장진단처방』으로 제공한다.
- 모바일 웹을 통해서 현장에서 토양을 분석한 결과와 작물 생육 사진을 등록하면 생육 진단과 맞춤형 처방이 가능하고,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토양검정은 작물 재배 전 실내에서 토양분석을 통해 작기 동안 필요한 양분의 양(밑거름, 웃거름)을 알아내는 과정이라면 현장 진단은 작물 생육 중 현장에서 토양의 상태를 신속히 진단해 적정 토양상태를 유지하고 부족한 양분을 제 때 처방하는 기술이다.
- 농촌진흥청은 이와 함께 현장에서 농경지 토양화학성을 진단하고 처방이 가능한 휴대용 현장진단 기기를 개발해 기술이전 했다.
- 개발된 기기는 토양화학성 7항목(pH, 전기전도도, Eh, 수용성 질소, 수용성인산, 황산이온, 염소이온)뿐만 아니라 정밀한 토양 진단을 위해 칼륨, 암모늄태 질소 분석도 가능하다.
- 이 기기를 활용하면 시군 농업기술센터 토양담당자, 농업인이 현장에서 손쉽게 토양분석이 가능하다.
- 현장에서 토양의 수용성 양분을 분석하고 저장된 결과를 QR 코드로 전환해 휴토람 시스템으로 전송하면 휴토람 모바일 웹의 『현장진단처방』 메뉴에서 유형별로 생육상태 진단 및 양분처방이 가능하다.

- 농촌진흥청은 현장진단 기기와 시스템의 개발과 함께 토양 현장 진단 및 처방 기술을 시군센터의 담당자를 통해 영농현장으로 보급하고 있다.
- 5월 25, 26일에는 전라남도 나주에서 각 도 토양검정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진단 및 처방능력을 겨루는 『제3회 농경지 현장 토양진단·처방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 경진대회는 각 도별 토양검정 담당자 2명이 한 팀으로 출전해 농경지 현장에서 토양을 진단해 처방서를 제출하면 토양분석 결과, 원인진단, 처방내용을 평가한다.
-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공명석 농업연구사는 “농경지 토양 현장 진단기술이 농업현장에 잘 활용되고 신속히 정착되면 작물 생육 장애 발생현장에서 원인 진단과 처방을 통한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라며, “앞으로는 흙토람의 토양검정 자료와도 연계해 보다 정밀한 현장진단에 의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킬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사료작물 갇아먹는 멸강충 지금 방제하세요

- 논둑, 밭둑, 목초지 등 1일 1회 이상 관찰해 방제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초여름 멸강충 발생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사료작물 재배지를 매일 관찰하는 등 해충 피해예방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 멸강충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지 않고 중국에서 날아드는 해충으로, 5월 말부터 나타나 6월 중순 가장 피해가 심하다.
- 멸강충 애벌레는 옥수수·수수류·목초·벼 등 벼과 작물의 잎과 줄기를 갇아먹으며, 식욕이 왕성하므로 피해 초기 빨리 발견해 방제해야 한다. 주로 사료용 옥수수 재배지의 피해가 큰데, 심하면 하룻밤 사이에 옥수수 잎을 모두 먹어 치우기도 한다.
- 발생 2~3일 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논둑이나 밭둑, 목초지 등을 1일 1회 이상 자주 관찰해 애벌레가 발생하는 즉시 방제해야 한다.
- 방제는 발생 초기 시중에서 판매되는 약제(파프유제, 델타린 유제, 디프록스 등)로 하고, 해당 약제를 1,000배 비율로 희석해 바람이 없는 시간에 옥수수 줄기와 잎에 골고루 묻도록 뿌리면 된다.
- 직접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는 작물은 농약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사용하도록 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멸강나방(애벌레)】



【멸강나방(어른벌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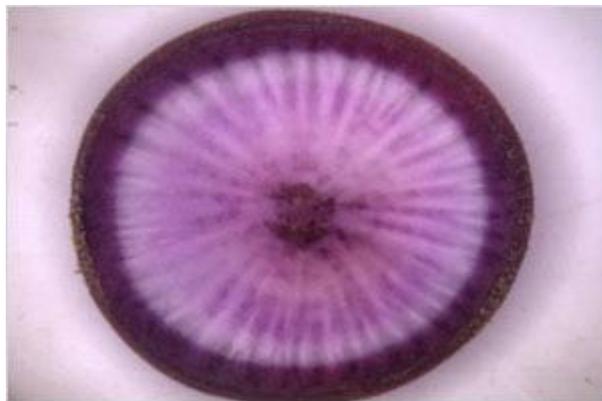
【목초 가해 모습】

■ 붉은 무의 비밀 밝혀... 안토시아닌 생성 핵심유전자 발견

- 신선 채소의 건강기능성 증진 품종 육성에 활용 -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천연색소인 안토시아닌을 축적하는 『붉은 무』를 분석해 안토시아닌 물질 생성의 핵심유전자를 확인하고 식물체에서 항산화 능력을 높임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
- 무는 일반적으로 뿌리색깔이 하얀 흰색 무와 뿌리에 안토시아닌이 축적된 붉은 무로 나눌 수 있는데, 붉은 무에서 안토시아닌 생합성을 조절하는 핵심유전자 『RsMYB1』를 찾아냈다.
- 『RsMYB1』 유전자는 안토시아닌 생합성 경로의 유전자들의 발현을 높이는 전사인자로 붉은색의 안토시아닌 생성을 증진하는 효과를 지닌다.
- 핵심유전자를 담배와 애기장대에 도입한 결과, 안토시아닌 생합성 경로의 유전자 발현이 늘고 천연색소 안토시아닌의 생성량이 46배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
- 특히, 안토시아닌 축적이 증가된 식물체에서 노화 및 세포 사멸에 주요원인인 물질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증대됨을 밝혔다.

* 출처 : 농촌진흥청



6. 정책 동향

◆ 전남도, 가뭄 피해 예비비 15억 긴급 투입

- 신안·고흥·무안 등 피해지역 간이양수장 설치, 유류대 등 지원 -
- 전라남도가 가뭄에 따른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예비비 15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이는 섬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가뭄 피해의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 24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이날 현재까지 전남지역 강수량은 131mm로 평년(290mm) 대비 45%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 이 때문에 섬지역 천수답을 중심으로 조생종 벼와 밭작물이 4천여ha에서 생육 부진 등 피해가 발생했고, 앞으로도 6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 모내기 지연 등 농작물 피해가 크게 늘 것으로 우려된다.
- 이번 예비비는 신안·고흥·무안 등 가뭄 피해가 심한 지역을 우선으로 차등 지원된다. 간이양수장 설치와 소형 관정 개발, 하상 굴착, 유류비 지원 등에 쓰여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전라남도는 24일부터 『농업용수 대책상황실』을 운영하면서 단계별로 지역 실정에 맞는 급수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중앙에는 봄 가뭄 해소를 위해 국비 100억원을 긴급 지원해줄 것을 건의하는 등 가뭄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 자연순환농업... 가축분뇨 액비 살포 서둘러야

- 장마철 대비 5월 말까지 완료 당부 -

- 전라남도가 양돈 분뇨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사료작물 생산과 연계해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액비를 전량 살포할 것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 또한 시군 및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조사료 경영체와 협의해 가축분뇨 액비 살포 농지를 사전에 확보, 장마철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권장했다.
- 이는 가축분뇨 액비저장조 여유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여름철 집중 강우 시 가축분뇨 퇴비·액비(침출수 포함)가 빗물 등에 섞여 축사 주변 및 농경지 등에 흘러 넘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 가축분뇨 액비 살포를 위해서는 축산농가 및 재활용 신고업체,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체, 액비유통센터, 공동자원화시설 등 가축분뇨 관련업체에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가축분뇨는 완전 부숙된 액비만 살포해야 하며,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농지 이외 지역에는 살포가 금지된다. 특히 부숙되지 않은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을 수 있다.
- 또한 가축분뇨 액비를 살포할 경우 대상 농경지의 3년 이내 토양 검정을 미리 실시하고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살포해야 한다. 과도한 액비 살포는 환경오염과 작물 생육에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경종농가의 의사를 확인한 후 하천, 농수로 등 살포농지 밖으로 액비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출처 : 전라남도

◆ 전남도, 6~8월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 운영

- 신고센터 26곳 운영... 고온다습한 기온 대비 사양관리 철저 당부 -

- 전라남도가 최근 무더위가 빨리 찾아온 가운데 올해는 예년보다 기온이 더 높고 강수량이 많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온다습한 기온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여름철 가축질병 방역관리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전라남도는 6~8월을 『여름철 가축질병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시군 및 동물위생시험소에 여름철 가축질병신고센터 26개소를 운영하면서 축산농가에 대한 예찰활동과 홍보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여름철 30℃ 이상 고온다습한 날씨가 장기간 이어지면 가축들이 더위 스트레스로 사료 섭취량이 줄어 생산성이 떨어지고 열사병 등에 의한 폐사 위험이 높아지므로 축사 내부를 25℃ 이하 적정 온도로 유지하고, 사료를 수시로 확인해 부패한 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 특히 가축이 과밀 사육되지 않도록 적정 사육밀도를 지키고 폭염 시 사육밀도를 평소보다 10~20% 정도 여유 있게 하며, 분뇨를 수시로 청소해 유해가스 발생을 차단하는 등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 또한 축사 지붕, 운동장에는 차광막을 설치하고 실내에는 대형 선풍기 등을 설치해 실내온도를 낮추고, 충분한 통풍과 알맞은 습도를 유지하고 가축에게 깨끗하고 시원한 물과 소금, 비타민과 광물질을 충분히 공급해 가축이 스트레스에 의해 면역력이 저하되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 국지성 호우 및 장마 시 축사가 침수되지 않도록 배수로를 확보하고, 축사가 침수된 경우 빨리 배수하고 축사 내·외부를 청소 및 소독해야 한다.
- 또한 신선한 공기가 지속적으로 공급되도록 환풍기 등을 가동하고 사료가 곰팡이와 세균이 증식하지 않도록 건조 상태를 유지하며, 급수시설이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 전라남도는 5월 2일 전남에서 야생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환자가 확진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을 위해 가축 또는 축사 내외부에서 진드기 발견 시 동물용 의약품으로 철저히 구제토록 홍보하고 있다. 축사 또는 야외에서 옷을 벗어 놓거나 눕거나 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작업 후 입었던 옷을 털고 세탁하며, 진드기에 물린 후 심한 발열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도 당부했다.

* 출처 : 전라남도



◆ 보육매니저 도입으로 6차산업 창업 쉬워진다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인 등의 창업 및 사업다각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 전반에 대한 상시 컨설팅을 지원하는 6차산업 보육매니저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 6차산업 보육매니저는 농업인 등의 창업 또는 사업다각화를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상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경영체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전문가이다.
- 보육매니저 제도 도입으로 경영체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사업장을 방문(6~12개월, 월 1회)하여 경영 전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경영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해졌다.
- 경영체가 창업 및 성장을 위해 경영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요청하면 6차산업지원센터에서는 경영체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적합한 보육매니저를 선정하여 통보하게 된다.
- 선정된 보육매니저에 대해서는 제도 도입 취지, 주요 역할, 관련 정책 사업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6차산업 포털에 명단 공개, 실적평가 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 6차산업 경영체는 전국 6차산업지원센터를 통해 '17. 7월부터 보육매니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유선 또는 현장방문을 통해 신청자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하고, 적합한 보육매니저를 통해 지원을 받게 된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여수시, 가뭄 대비 차질 없는 영농급수 총력

- 2억 투입 15곳에 관정 개발도 완료 -

-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가뭄 발생 시 영농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시는 2월부터 3월까지 지역 저수지 66곳과 관정 265곳을 점검하고 양수 장비 270대의 정비를 마쳤다.
- 노후화로 각별한 점검이 필요한 돌산읍 평사제 등 6곳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밀점검도 실시했다.
- 시는 점검결과 조치가 필요한 곳은 국비 확보 등을 통해 보수·보강을 해 나갈 방침이다.
- 도비 1억 6,000만원, 시비 4,000만원 등 2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용수개발사업도 실시됐다. 이를 통해 농업용수 공급원이 부족한 상암동 진남마을 등 14곳에 관정 개발이 지난달 완료됐다.
- 시는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도 대비하고 있다. 주기적으로 관정을 보수하고 용·배수로의 퇴적물 준설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시 관계자는 “여수는 평균 저수율이 현재 78%에 달해 농업용수 공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어 원활한 급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여수시

■ 나주시, 농·특산물 전자상거래시스템 통합개편 오픈

- 가락몰·포스몰 입점업체 판매수수료 지원 -

- 나주시가 지역농업인 및 식품가공기업 경영안정을 위해 관내 우수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유통경로를 확대·개편하는 등 판촉 활성화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 나주시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 개발한 농산물 직거래 온라인 쇼핑몰 『포스몰』 입점업체의 판매 수수료 지원을 비롯해, 2003년부터 운영 중인 『나주시 쇼핑몰』을 2015년에 나주·담양·화순·장성 4개 시군이 공동으로 구축한 『오색마을 쇼핑몰』과 통합으로 운영하는 방침을 세워, 보다 효율적인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한 온라인판매를 촉진 중에 있다.
- 포스몰은 요식업소 등에서 사용하는 카드결제용 POS단말기에 쇼핑몰을 구축해 별도 홈페이지 로그인 없이 POS를 통해 필요한 식자재, 농산물 등을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소상공인의 접근성이 용이해, 생산자와 소상공인 간의 활발한 거래를 통한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오색마을 쇼핑몰의 경우 최신솔루션을 통한 홈페이지 구축과 더불어, 스마트폰 모바일 구매시스템 등 변화하는 소비패턴을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가 탑재된 전자상거래시스템이다. 나주·담양·화순·장성 4곳의 시군 참여로 다양한 판매품목을 통한 경제 파급효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오프라인에서는 서울농수산물공사에서 개설한 『가락몰』 농·특산물 전시판매관에 나주시 부스를 설치하여 수도권 소비지를 확보하고, 입점업체에 판매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지역 농가의 수도권 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다. * 출처 : 나주시

■ 광양시, 명품 『빛그린 광양매실』 본격 출하

- 5. 25.~7. 10. 까지, 각 지역농협과 원협에서 9천여톤 출하 예정 -
- 광양시는 5월 25일 오후 4시 다압농협 매실선별장에서 광양매실 첫 출하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광양농협을 비롯한 5개 지역농협과 광양원예농협을 시작으로 7월 10일까지 2016년 보다 634톤이 많은 9천여톤을 출하할 예정이다.
 - 금년은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어 현재까지 매실확장은 풍작이나 일부 복숭아씨살이좀벌 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최연송 매실정책팀장은 “농협과 함께 광양매실의 판로 확보와 제값 받기에 앞장서겠다”며, “매실 농가에서 고품질 대과 위주의 매실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광양매실은 2007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매실품목 최초로 지리적표시제 등록하는 등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2015년과 2016년에 대한민국 소비자신뢰 대표브랜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다.

* 출처 : 광양시



■ 곡성군, 벼 깨씨무늬병 예방 시범농가 교육

- 미량요소 농자재 공급을 통한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에 나서 -

- 곡성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은 농업인과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5월 2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벼 깨씨무늬병 예방 교육을 가졌다.
- 벼 깨씨무늬병은 8월 벼 출수 무렵인 중순부터 벼 잎에 깨씨모양의 검은색 점이 생기는 병이다. 9월에 등숙기에 접어들면 병 발생이 심하면 잎이 말라 등숙이 불량하여 수확량과 쌀 품위에 영향을 미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이번 시범사업은 깨씨무늬병 주요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270ha 면적의 무농약 재배단지에 추진한다. 깨씨무늬병은 미량요소인 철, 망간이 부족한 땅에서 더 심하게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미량요소가 함유된 자재를 못자리에 처리하여 예방하는 것이다. 사용방법은 작물활성제를 모내기 1~2일전에 관주한다.
- 군관계자는 “작물활성제가 벼 깨씨무늬병 예방에 효과가 있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퇴비살포, 토양개량제인 규산질비료, 출수기 무렵 엽면살포 방제 등 종합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 곡성군



■ 고흥군, 벼 농작물재해보험료 80% 지원

- 고흥군은 예측 불가한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에 나섰다.
- 군은 오는 6월 9일까지를 벼 재해보험 가입 중점기간으로 정하고 읍·면별 가입확대 전략회의와 반상회, 마을방송 등을 통해 벼 보험 가입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 벼 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집중호우, 가뭄이나 기타 자연재해와 야생동물, 화재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상품으로 병해충특약 가입 시에는 주요 병해충 4종(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 군은 올해 벼를 비롯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확대를 위해 783백만원을 확보하고 농가 순 보험료의 80%를 지원할 계획이며, 벼의 경우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순 보험료는 1ha당 약 45만원 선으로 이 가운데 20%인 9만원만 농가가 부담하면 된다.
- 신청은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축산과(☎ 061-830-5374)로 문의하면 된다.
- 특히, 2016년 고흥군의 벼 재해보험 가입면적은 전체가입 면적의 72%인 9,334ha로 전남 최고였으며, 가뭄과 수발아 등의 피해로 총 915농가에서 46억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실제로 고흥도덕면 A농가에서는 벼 2.6ha가 수발아 피해를 입어 자부담보험료의 48배인 1,298만원의 보험금을 받기도 했다.

* 출처 : 고흥군



■ 보성군, 가뭄·폭염 대비 발빠른 대책 마련

-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가뭄·폭염의 선제적인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농번기 봄가뭄에 대비 2016년 하반기부터 522백만원을 투자하여 중형 관정 58공, 소형 97공 등 155공의 관정을 개발했으며,
- 저수지·양수장 등 수리시설물 118개소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농업용수 부족으로 영농에 차질이 있는 지역은 양수기 대여, 하상굴착, 다단 양수 저수지 물채우기를 실시하고, 소규모 수리시설 보수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읍·면에 즉시 교부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광역·지방상수도, 마을상수도 등 소규모 급수시설을 활용하고 있는 생활용수는 아직까지 차질 없이 공급되고 있지만, 군민 절수운동 및 군민행동요령 등을 사전에 홍보하여 봄 가뭄에 따른 대비에 철저를 기해 군민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
- 또한, 연일 이른 초여름의 고온날씨와 기후 온난화에 따른 여름 폭염에 대비 무더위쉼터 275개소를 지정하고, 에어컨 정상 가동 여부 등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시설사용에 대한 불편 및 미비사항은 빠른 시일 내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 냉난방 시설이 안된 무더위쉼터 8개소에 에어컨 설치와 경로당 428개소 지원을 위해 42백만원의 냉방비를 별도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돌보미, 자율방재단 등 523명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1,500여명 등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할 계획이다.
- 가뭄 및 폭염 대비 군민행동요령 홍보를 위해 전단지 제작·배부, 현수막 내걸기, 마을방송, 반상회보 및 읍·면정회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 출처 : 보성군

■ 함평군, 생대추 육성 현장교육 실시

-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1시군 1특화작목으로 선정된 대추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22~26일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 함평군은 단호박·무화과·부추·쑥·고사리 등 5대 특화작목에 이어 2016년부터 『대추』를 신(新) 소득 작목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해 왔다.
- 생대추 재배기술을 정립하고 시설재배로 품질을 높이면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품목으로 판단돼 전남도 1시군 1특화작목 육성사업에 신청해 올해 초 선정됐다.
- 이에 따라 1만 7천m² 규모의 90개 농가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에 돌입했다. 순 자르기, 가지유인 요령 등을 설명하며 키를 낮춘 저수고 재배와 큰 대추를 생산하기 위한 눈높이 맞춤교육을 펼친다.
- 대추나무의 신초관리, 병해충 방제요령, 토양 관리요령도 병행 교육한다. 특히 5~6월은 대추를 안정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선 물관리가 필요하고 나방류의 방제가 이뤄져야하는 시기여서 농가 지도에도 힘쓰고 있다. * 출처 : 함평군



■ 영광군, 영광모싯잎송편 지역 명품 떡으로 우뚝

- 영광군(군수 김준성)의 대표적 특산품 『영광모싯잎송편』이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승인을 받아 지리적 표시제에 등록됐다.
- 5월 2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영광모싯잎송편』의 지리적표시 등록증을 수여받음으로써, 영광군에서 생산되는 쌀·모시·동부로 만든 모싯잎 송편에 국가 인증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특히 지리적 표시는 생산된 지역을 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명품의 품질과 명성 및 역사성을 갖춘 지역 특산물에만 주어지기 때문에 시장 차별화와 품질 향상을 꾀할 수 있으며 국가가 보호하고 인정하는 지역 명산물로 중점 육성할 수 있다.
- 『(사)영광에서 모싯잎떡을 만드는 사람들』은 2008년부터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 등록을 위해 준비하여 2009년 5월에 설립되어 2009년과 2011년에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하였지만 아쉽게 미등록되어, 6년간 끊임없이 미흡한 점을 보완, 2016년 5월 3일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하여 3차에 걸친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등 심의과정을 거쳐 마침내 영광모싯잎송편의 지리적표시 등록을 인정받았다. 또한 2017년 3월부터 2개월 동안 공고기간을 거쳐 5월 11일 최종적으로 지리적표시 제104호로 등록되었다.
- 영광군은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 등록으로 지역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가 동반 성장해 영광 떡 산업의 부가가치 향상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여, 영광모싯잎송편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가 상승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영광군

■ 신안군, 농업기술센터 초·중·고생 농촌체험장으로 탈바꿈

- 신안군은 5월 24일 압해서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학생 35여명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촌 체험활동을 전개하는 등 지금까지 관내 초·중·고생 150여명이 다녀가 명실 공히 학교를 비롯한 농업 관련 기관·단체 및 농업인들로부터 견학장소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날 학생들은 부추 수확 체험활동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와 농업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수확한 부추는 신안군이 여름철 농업인의 소득 작목 육성을 위해 양액재배 베드시설을 활용하여 재배한 칠곡 10호라는 품종으로 시장성이 좋은 상품이다.
- 압해서초등학교 김영란 인솔교사는 “이번 농촌 체험활동이 학생들에게 수확의 뿌듯한 기쁨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는 것은 물론 편식위주의 식습관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출처 : 신안군



8. 해외 농업정보

◆ 일본, 2017년 트렌드 『기능성』에 주목, 고당도계 야채가 인기

- 2017년 야채판매 키워드는 『기능성』과 『쉬운 조리』이다. 일본 농업신문사의 트렌드 설문조사에서 주목 중인 야채의 품종 또는 브랜드를 물었을 때, 일반적인 품종의 당근보다는 리코펜을 많이 함유한 브랜드가 언급되는 등 건강지향을 배경으로 차별화를 인식한 회답이 눈에 띄었다. 토마토로 대표되는 『고당도』에 관심도 여전했다.
- 이번 조사는 슈퍼마켓이나 생활협동조합, 도매회사 등 57사로부터 실시하여 금년에 실수요가 요구되는 야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품종 및 브랜드를 각 담당자가 자유롭게 기술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 당근은 리코펜 함유율이 높고 더욱 단맛이 강한 것이 특징인 『쿄쿠레나이』나 『코이쿠레나이』 품종이 눈에 띈다. 높은 기능성으로 차별화 상품으로 자리 잡음과 동시에 “선명한 색깔에 길어도 키토키 당근과 보통품종의 중간정도로 조리하기도 용이하다”고 수도권의 도매상은 말하고 있다.
- 토마토는 고당도계 품종의 인기가 꾸준하다. 가장 이름이 많이 언급된 것은 『아메라』로, 거의 연중공급 된다는 점 등 안정된 판매 제안이 가능하여 인기가 있다. 『아이코』는 “식용에 용이한 형태나 그대로도 먹을 수 있다는 간편성으로 간식으로서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지를 얻고 있다.

○ 산지에 바라는 요망을 물었을 때, 작년 한 해 기후가 불안정했던 이유에서인지 '품질의 안정'(63%)에 관한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산지 릴레이로 연중 출하에 있어 부족함이 없을 것'(28%)으로 나타났으며, '안전·안심 대책의 강화'도 같은 비율로 2위로 나타났다. '야채가 팔리는 조건'에 대한 설문에서는 1위로 '가격'(31%), 다음으로 '신선도'(30%), '맛'(11%)으로 나타났다.

○ 금년도 주목되는 야채품종 및 브랜드

- 토마토 : 아메라(ameila), 아이코, 모모타로 시리즈, 하치바에 토마토
- 당근 : 교쿠레나이, 코이쿠레나이, 아로마렛도
- 양배추 : 톤가리보우시, 미우라하루양배추, 캔디양배추
- 배추 : 오렌지퀸, 시로후리배추
- 양파 : 도큐타피루시, 스마이루보루, 사라타마짤
- 기타 : 브록콜리 · 스냅완두콩 · 마늘 · 애호박 · 아스파라거스 · 오쿠라 · 생강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아메라 토마토	아메라 토마토	도큐타피루시 양파	아이코 토마토	아이코 토마토
				
오렌지퀸 배추	톤가리보우시 양배추	교쿠레나이 당근	교쿠레나이 당근	코이쿠레나이 당근

◆ 베트남 농업 발전과 한국 농기계 수출 기반 마련

-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5월 25일 베트남의 응헤안성(Nghe-An) 디엔짜우현(Dien-Chau)에서 베트남농업과학원 원장, 응헤안성 인민 위원장(도지사급), 땅콩재배농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해 땅콩 시범마을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응헤안성은 땅콩 재배면적이 베트남 총 땅콩 재배면적의 약 25% 정도인 17,000ha이고 연간 땅콩 생산량이 4만톤이 넘는 베트남 땅콩의 최대 주산지다. 그러나 재배기술이 부족하고 풋마름병의 피해가 심해 적합한 재배기술 및 저항성 품종의 조기 보급이 절실한 실정이다.
- KOPIA 베트남 센터와 베트남 농업과학원은 2014년부터 공동 연구를 통해 한국의 우수한 땅콩 재배기술을 도입하고 우수품종 종자보급 시스템을 구축한 결과, 2016년 종자생산량이 2년 전에 비해 20% 이상 높아지고(3.9톤/ha) 농가소득이 47%(1.7천→2.5천 달러) 증가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왔다.
- KOPIA 베트남 센터는 이와 같이 농가실증 사업을 통해 입증된 우수한 기술을 소규모 땅콩 생산농가에 널리 보급함으로써 농가 소득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2019년까지 3년간 응헤안성 남단(Nam-Dan)현, 디엔짜우(Dien-Chau)현, 응이록(Nghi-Loc)현 등 3현을 대상으로 땅콩 종자생산 보급체계 구축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
- 특히, 생력재배가 가능한 저비용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리기, 비닐피복기, 파종기 및 수확기 등 우수한 한국 농기계를 들일 계획이다. 앞으로 농기계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5. 29.(시카고 선물거래소)

□ 풍부한 글로벌 공급량으로 인해 옥수수·대두 선물 가격 하락

○ 밀 선물시장 시황(▼0.4%)

- 밀 선물 가격은 옥수수·대두의 하락세에 동조하며 전일대비 하락 마감 하였음. 그러나 환매수세 유입 및 겨울 밀 생산 지역의 습한 기후에 대한 우려 등은 가격 하락을 제한하였음

○ 옥수수 선물시장 시황(▼0.5%)

- 옥수수 선물 가격은 풍부한 글로벌 공급량으로 인해 전일대비 하락하였음. 그러나 중서부 지역의 비로 인한 피해는 가격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대두 선물시장 시황(▼0.9%)

- 대두 선물 가격은 풍부한 글로벌 공급량 및 재고량으로 인해 전일대비 하락하였음. 그러나 기술적 매수세 유입 등이 가격 하락을 제한하였음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유기농 종합보험 농가 부담액 100% 지원

- 전남도, 벼·과수 등 유기농 인증농가 대상 -

- 전라남도는 벼·과수 등의 유기농 인증농가가 『유기농 종합보험』을 가입할 경우 농가 부담액 100%를 지원해 준다고 27일 밝혔다.
- 일반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가입 시 보험료의 20%를 농가가 부담하고 있으나, 유기농 종합보험은 전라남도가 유기농가의 자부담금 20%까지 전액 지원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 이는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특히 전남지역 무농약 단계에 있는 농가들이 유기농으로 상향 인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유기농 종합보험』을 2011년부터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 가입 대상은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53종 가운데 유기농 인증을 받은 품목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지다.
- 가입 시기는 벼와 옥수수·봄감자의 경우 6월 9일까지이고 다른 작물들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시기에 맞춰 가입하면 된다.
- 전남지역 유기농 재배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관할 시군이나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으로 친환경농산물 경작과 취급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 출처 : 전라남도

◆ 축산관계자 해외여행 시 출·입국 신고 강화

- 6월 3일부터 신고 의무화 및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7년 6월 3일부터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가축전염병 발생(구제역, 고병원성 AI) 국가를 방문, 체류 또는 경유하는 경우 반드시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에게 출·입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이는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법률 제14288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에 따른 것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의 소유자 등 축산관계자가 출·입국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바 축산관계자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축산관계자의 범위 : ① 가축의 소유자와 그 동거가족 ② 가축의 소유자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③ 수의사 ④ 가축방역사 ⑤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⑥ 동물약품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⑦ 사료 제조판매자 및 고용인 ⑧ 원유 수집운반자 ⑨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⑩ 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 (입국 신고 위반) (1회) 30만원 (2회) 2백만원 (3회) 5백만원
 - (출국 신고 위반) (1회) 경고 (2회) 10만원 (3회) 50만원



-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란 해외 구제역고병원성 AI가 발생한 국가를 말하며, 해당 정보는 검역본부 홈페이지(eminwon.qia.go.kr) 또는 전화(ARS 1670-2870)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특히, 출국 신고의 경우는 항공기 이륙 또는 선박 출항 전까지 검역본부 출국신고시스템에 접속(인터넷: eminwon.qia.go.kr, 모바일: eminwon.qia.go.kr/m)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 또한, 검역본부에 전화(1670-2870), 방문, 모사전송 등 전자문서 또는 출국장 내에 설치된 출국 신고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 아울러,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 체류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에는 도착하는 공항만 주재 검역본부를 방문하여 입국 신고를 하고 방역 관련 소독·교육 등의 조치를 받으면 된다. 이번에 시행하는 출·입국 신고 의무화 및 출·입국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제도는 축산관계자의 검역방역 의식을 고취하고 신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미연에 방지하여 축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17.4월 발표한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 추진 과제 중 하나이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외여행 시에는 축산농가 및 가축시장을 방문하지 말고,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귀국 후 5일간은 가축 사육 농장 등 축산 관련 시설에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5월 22일부터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 실시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지자체검역본부와 합동으로 GPS 장착, GPS 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축산차량등록제 합동단속은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 4월)에 따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실시하며, 축산차량 GPS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는 지난 AI구제역 방역 과정에서 GPS를 끄고 운행하거나 고장 등으로 인해 GPS가 정상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산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일부 확인됨에 따라,
-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최근 3개월간('17. 1~3월) 축산시설 출입 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 8,928대(전체 등록차량 49,061대의 18.2%)를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서 추출하여 집중 단속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에 등록 및 GPS장착(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 참고로, 농식품부는 농장 간 AI 확산 매개체 역할을 하는 축산차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17. 4)에 따라 축산차량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GPS 미장착 차량 신고포상제 도입, 축산차량 표시 의무화 등도 아울러 추진할 예정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곡식의 씨앗을 뿌리는 망종(芒種)

- 24절기 중 아홉 번째 절기, 망종(芒種)은 소만(小滿)과 하지(夏至) 사이에 들며 음력 5월, 양력으로는 6월 6일 무렵이며, 2017년은 6월 5일이 되었다.
- 망종이란 벼·보리 같이 수염이 있는 까끄라기 곡식의 종자를 뿌려야 할 적당한 시기라는 뜻이다. 이 시기는 모내기와 보리베기에 알맞은 때이다. 그러므로 망종 무렵은 보리를 베고 논에 모를 심는 절후이다.
-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는 속담이 있다. 망종까지 보리를 모두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하게 된다는 뜻이다. 망종을 넘기면 보리가 바람에 쓰러지는 수가 많으니 이를 경계하는 뜻도 담고 있다.
- 모내기와 보리베기가 겹치는 이 무렵에는 보리농사가 많은 남쪽 일수록 더욱 바쁘다. 그래서 이때는 『밭등에 오줌 심다』라고 할 만큼 일 년 중 제일 바쁜 시기이다. 비가 끊임없이 내리며, 농가는 모내기 준비로 바쁘다.
- 망종에는 『망종보기』라 해서 망종이 일찍 들고 늦게 들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친다. 음력 4월에 망종이 들면 보리농사가 잘 되어 빨리 거두어들일 수 있으나, 5월에 들면 그해 보리농사가 늦게 되어 망종 내에 보리농사를 할 수 없게 된다.

- 곧, 망종이 일찍 들고 늦게 들에 따라 그해의 보리수확이 늦고 빠름을 판단하는 것이다. 『망종이 4월에 들면 보리의 서를 먹게 되고 5월에 들면 서를 못 먹는다』 고 하는 속담이 있다.
- 『보리의 서를 먹는다』 는 말은, 그해 풋보리를 처음으로 먹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예전에는 양식이 부족해서 보리 익을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풋보리를 베어다 먹었다고 하니 그때의 삶을 엿보이게 한다.
- 그래서 망종 시기가 지나면 밭보리가 그 이상 익지를 않으므로 더 기다릴 필요 없이 무조건 눈 감고 베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보리는 망종 삼일 전까지 베라』 는 말이 있다.
- 망종 음식으로 지역마다 차이를 보이며, 제주에서는 풋보리 이삭을 뜯어 알을 모아 보릿가루로 죽을 끓여 먹으면 여름에 배탈이 나지 않는다고 한다.
- 전남 지역에서는 이날 『보리그스름(보리그을음)』 이라 하여 풋보리를 베어다 그을음을 해서 먹으면 이듬해 보리농사가 풍년이 든다고 한다. 보리가 잘 여물어 그해 보리밥도 달게 먹을 수 있다고 한다.
- 또한, 이날 보리를 밤이슬에 맞혔다가 그 다음날 먹는 곳도 있다. 이렇게 하면 허리 아픈 데 약이 되고, 그해에 병이 없이 지낼 수 있다고 믿었다.

* 출처 : 네이버지식정보





주간
전남농업정보 137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58213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